

제 147회 골드명사특강

주제: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경제의 과제

강사: 윤증현 전 장관

일정: 2016년 11월 29일 (화) 19:30~21:00

약력: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실명제 실시 준비단장, 세제심 의관, 증권국장, 금융국장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경제연구소

1. 우리의 자화상
2. 해외 여건과
3. 한국의 딜레마와 주요과제

(1) 자유와 소중함에 대하여(자유와 책임)

- 자유의 범람, 홍수, 과잉속에 그 소중함 망각
- 자유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근원, 원천, 원동력
- 사상의 자유 언론 표현
- 자유의 남용-법치의 수금
- 경제의 자유: 국가별(27/184) 노동유연성(134/184)

(2) 자유와 책임

- 성숙한 시민의식:
- 공동체 의식의 발원,
- 책임

(3) 자유의 한계(John Stuart Mill의 자유론)

2)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

- 기회의 균등 vs 결과의 균등, 법 앞의 평등(정치Risk)
- 경제적 자유 (기본질서) vs 경제민주화(문제점보완)
 - 헌법정신(119조 1, 2항)
 - 정치권의 2항 악용과 기업의 무책임성 등으로反기업, 反시장 질서 팽배: 평등의 의미 왜곡

대한민국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 조 제 2 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19 조 제 2 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대한민국은 가치중립국인가?

- 자유 민주주의 (정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
- 반시장적, 반민주적 행태, 입법(국회)-대한민국의 정체성(?)
- 광복·건국의 역사논쟁을 보는 소회-“국민 Mind의 사회주의화”
-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 줄을 잘못 서게된 나라(東歐)의 비극

4)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 모든 사회 현상의 근저에 교육이 자리함
-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100년을 살려면 덕(인)을 심어라 →교육은 백년대계
- *사마천의 화식열전
- 알파고(AI)가 남긴 과제: 교육의 혁신(주입식, 암기식)
- 교육의 이념과 철학 부재, 교육의 양과 질에서의 실패
- 국민의 기본적인 정신문화
- * 일(迷惑), 미국(준법, 정직), 영 독(명예), 한국은(?)

<우리의 자화상-Total Crisis-신뢰의 위기>

주제별 평가

국회: 식물국회, 불임국회, 선진화법(19대), 여소야대, 다당제(20대)

사법: 국민의 일반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지연된 정의도 정의인가? 민변과 사법정의 실천감시센터의 발족

행정부: 국민과 시장과의 소통부재, 정책의 일관성 결여, 개혁의지와 전략의 부족, 인사의 파행, 헌정중단의 위기 (탄핵)

Media: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난립 (과당경쟁), 언론의 역기능 심화, 계도기능상실

기업: 투자의욕상실, 기업가정신 쇠퇴, 일부 대기업의 일탈

노조: 불법파업 + 폭력시위, 정치투쟁화

시민단체: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기득권 세력화

교육계: 교육의 이념과 철학 부재, 공교육의 실종, 대학구조조정 시급

일반국민: 성숙된 시민의식 결여 (준법정신, 공동체의식) 자유에 따른 책임 망각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경제 상황>

- 저성장('15:2.6%)의 지속과 일자리의 감소
 - 세계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2), '16 3분기(0.7% 성장)
 - 일자리 삶의 원천, 최대의 복지, 고용률 66.4('16.0)
- 수출의 급감과 내수의 부진-2년여 지속
 - 투자과 소비의 감소, 서비스 산업의 부진
- 제조업의 추락(가동률 70.2%)
 - 주력 13개 품목의 공급과잉과 global demand 축소

-조선, 철강, 건설, 해운, 석유화학, 전자 등

■ 소득격차의 확대

-지-니 계수, 5분위 배율의 악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기대난

※내외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Secular Stagnation(장기정체) & Perfect Storm(동시다발적 강력한 폭풍)

※설상가상(눈 위에 서리가 덮인) 백척간두(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 풍전등화(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글로벌 무역 상위 10 개국>

1 위 중국 수출	13.8%	미국 수입	13.8%
2 위 미국	9.1%	중국	10%
3 위 독일	8.1%	독일	6.3%
4 위 일본	3.8%	일본	3.9%
5 위 네덜란드	3.4%	영국	3.7%
6 위 한국	3.2%	프랑스	3.4%
7 위 홍콩	3.1%	홍콩	3.3%
8 위 프랑스	3.1%	네덜란드	3.0%
9 위 영국	2.8%	한국	2.6%
10 위 이탈리아	2.8%	캐나다	2.6%

※ 홍콩은 중국과 교역 규모 포함 [자료=세계무역기구]

<구조조정, 개혁, 규제혁파 시급>

※ 말뚝(Malmo)의 눈물-제조, 수출의 전초기지(울산, 포항, 거제)

※ GDP, per capita, 수출, 무역규모, G20, G50

'말뚝의 눈물'을 아십니까?

파산한 스웨덴 조선소, 현대중에 크레인 1달러에 팔았는데 지역주민 30만명이 눈물을 흘렸던... 요즘엔 한국 조선, 철강, 화학 일감 없어 공장 불 꺼져... 골든타임 반년뿐....정부는 구조개혁을, 과반 야당도 나서야... 주력 산업의 문제는 전임 정권(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표면화했지만 정치적 부담에 구조조정을 미루고, 채권단과 공기업의 '낙하산' 사장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부실을 덮는 데만 급급했던 게 사태를 악화시켰다."

The **Kockums Crane** (Swedish: *Kockumskranen*) is a 138-metre (453 ft) high gantry crane in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shipyard in Ulsan, South Korea. It was originally used at the Kockums shipyard in Malmo, Sweden. It was built in 1973–74 and could lift 1,500 tonnes. The gauge of crane's rails was 175 metres (574 ft) and the rail length 710 metres (2,329 ft). The crane was used to build about 75 ships. Its last use in Malmö was in mid 1997, when it lifted the foundations of the high pillars of the resund bridge. The crane was first sold in the early 1990s to the Danish company Burmeister & Wain but the company went bankrupt before the crane could be moved.

The crane was a landmark of Malmö from its time of construction until its dismantling in the summer of 2002, when it was shipped to Ulsan, after being sold to Hyundai Heavy Industries for \$1. The Koreans have dubbed the crane "*Tears of Malmoe*", due to the notion that the residents of Malmö wept when they saw their crane being towed away. (Source: Wiki)

<사회갈등, 분열의 심화>

- 자살율, 이혼율, 노인빈곤율-OECD 최상위
- 출산율(1.2)-OECD 최상위
- 좌우, 보수진보, 지역별, 계층별, 정파간 분열, 대립
- 국가 Projects 의 좌초 : 밀양, 제주, 도롱뇽(KTX), 부안

2000년대 초반 지울스님은 도롱뇽을 내세워 환경파괴등의 이유로 KTX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 반대는 이곳의 습지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주장하며 6개월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145억 +a(간접손실)의 국가의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을 합치면 피해액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손실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 왔다. 지울은 터널이 뚫린 후에도 도롱뇽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La Guardia 시장, 징비록, 광해군 세월호 사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비 (FT : 인류의 정신이 아직도 진화하고 있음을 본다)

<정치의 실종과 정책의 실기>

- 정책은 Timing(국회의 지원) → 식물 + 불임
- 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은(?)-입법부의 과잉권력화와 개헌(모든 길은 국회로)
- 세종시로의 행정부 이전 →행정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추락
- 역대 국회 법안 가결율 19대가 최저, 반기업 반시장 법안 다수
- 계류중인 법안- 경제관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 정치의 계절도래-'16 총선, '17 대선, '18 지자체
- 각종 Populism 공약난무 (무상시리즈)
- “Economy grows in the night when politicians sleep.”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 발전의 기대는 어렵다

<해외의 시각>

- CNN(10 strong points : CC, S-Phone, 성형, 음주, 근무시간, KLPGA 등)
- EU(Test Bed 화: 출판, 작품, 연예)
- IMF(신흥 15개국 평가: Fed 금리인상 여파)
-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신평 상향
- Economist (민주화 지수 : 21/25) : 미 일 프 을 능가
- Goldman Sachs (2005: 한국의 경제 장기전망)

※ Per capita GDP

-2025 : \$52,000(세계 3 위) 미국, 일본

-2050 : \$81,000(세계 2 위) 미국

[참고] CNN 이 본 한국이 잘하는 것

10 things South Korea does better than anywhere else

1. **Wired culture**: Book a ticket to the country with a worldwide high 82.7% Internet penetration and where 78.5% of the entire population is on smartphones (as of 2013).
2. **Whipping out the plastic** : While Americans made 77.9 credit card transactions per person in 2011 and Canadians made 89.6, South Koreans made 129.7.
3. **Workaholics** : According to 2012 data from South Korea'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outh Koreans work 44.6 hours per week, compared with the OECD average of 32.8. You can see it in any Korean city, where lights in buildings blaze into the late hours as workers slave away.
4. **Business boozing** : While many leading companies are trying to curb the working/drinking culture, there are still plenty of bosses who drag their teams out for way too many rounds of soju/beer/whiskey "bombs."
5. **Innovative cosmetics** : Just as Korean men are less wary of going under the plastic surgery knife (see point 10) than their foreign counterparts, they also snap up skincare products and, yes, even makeup, namely foundation in the form of BB cream.
6. **Female golfers** : Of the top 100 female golfers in the world, 38 were Korean.
7. **Starcraft** : There are cable channels devoted solely to the games, and the culture has led to approximately 14% of Koreans between ages 9 and 12 suffering from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Information Agency.
8. **Flight attendants** : Flight attendants from airlines around the world come to Korean airlines' training centers to learn proper airborne charm.
9. **Blind dates** : They should know. Of the top four matchmaking companies in Korea (there are 2,500 companies in the country), Duo has a 63.2% marketshare.
10. **Plastic surgery** : Russians, Chinese, Mongolians and Japanese flock to South Korea on plastic surgery "medical tours," not only for the skill of the surgeons, but for the good deals.

한중일 3 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 한·중·일 3 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

등 급 ¹⁾	Moody's	S&P	Fitch
AA (Aa2)	한국	한국	
AA-(Aa3)	중국(부정적 전망)	중국(부정적 전망)	한국
A+ (A1)	일본	일본	중국
A (A2)			일본(부정적 전망)

1)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 **(재정건전성)**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38.9%**(‘16 년 기준)로 **AA 레벨 국가 평균(39.8%) 수준**이라면서

- 정책당국은 고령화 등 장기 부담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책임성과 재정준칙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16 년 0.2%, ’17 년 0.3%, ‘18 년 0.4%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해외 여건

Mega-trend :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제 1 차 산업혁명 (18c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 → 기계식 생산설비 (농업→상공업, 기계파괴운동)

제 2 차 산업혁명 (19c 후반) 전력의 발명(에디슨의 전구), 노동분업 →대량생산

제 3 차 산업혁명 (20c 후반)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 지식 정보화 시대

제 4 차 산업혁명(21c) 로봇, 인공지능, IOT, 드론, 무인자동차 3DP, Bio→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세계 연결, 융 복합 산업화

※4 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의 대변화 초래

-기회이자 위협 대응 여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교육시스템의 개선, 기초과학기술의 육성,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고용의 변화 (710 만 이하 → 200 만 이상)

-휴보 (인간형 로봇)의 다보스로의 초대 (KAIST의 오준호 박사)

※ Bill Gates(MS) : Impatient Optimist

Klaus Schwab(WEF) : Pessimistic Optimist

빌 게이츠가 천국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티브, 거기 어때?" 잡스가 답했다. "아주 좋아!

여기는 벽도 없고 펜스도 없어." 게이츠가 "아, 그래?"라고 받으며 대화가 이어진다.

"벽도 없고 펜스도 없다 보니까 여기는 창문(Windows)도 없고 문(Gates)도 없다고. 아, 빌,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알지?"

"그럼, 괜찮아. 근데 무슨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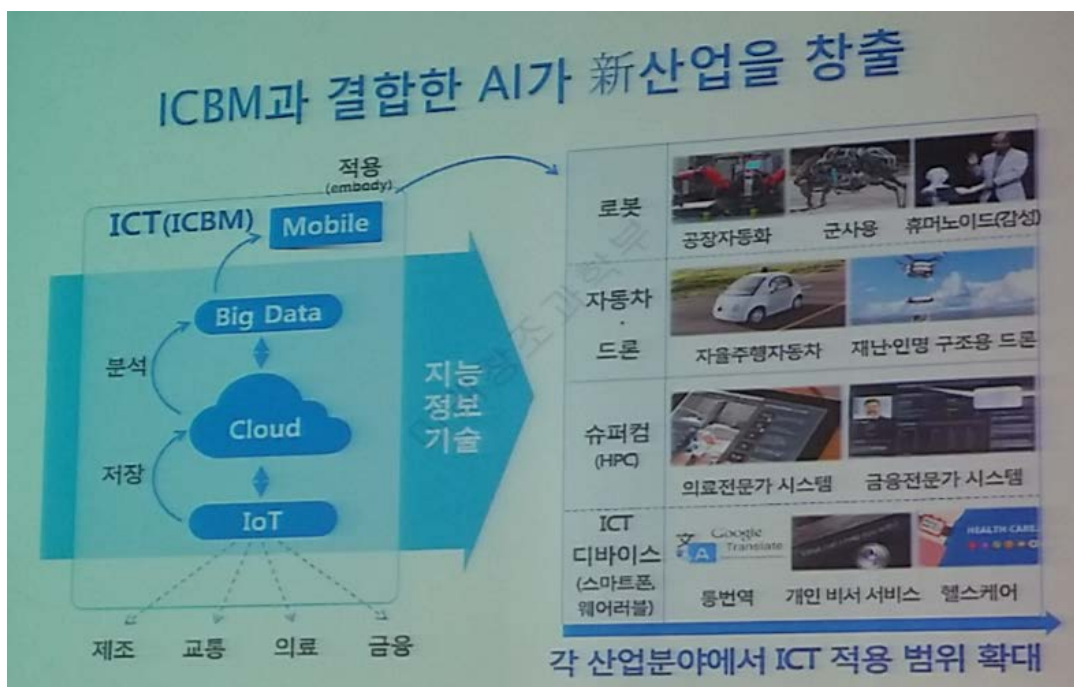
"천국에서는 아무도 사과(Apple)를 건드리지 않는다더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직업(Jobs)도 없다던데?"

"아니야. 사과는 모르겠지만 직업은 있어. 다만 아무도 월급을 받지 않지. 그래서 여긴 돈(Bill)이 필요 없다고."

최근 인터넷에 도는 유머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평생 경쟁자로 살았지만 아쉽게도 잡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경쟁 결과는 미결(未決)로 남았다. 그것이 아쉬운 사람들은 농담을 만들어 내며 두 사람을 다시 떠올린다.

(자료: 조선)

ICBM과 결합한 AI가 신산업을 창출



금융, 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도입 활발

금융, 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도입 활발

금융업계의 Big data + 지능정보기술

싱가폴 개발은행 DBS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투자자문과 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상품> <고객 서비스>
<시장> <보고서> <세일즈> <마케팅>
관련 정보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 및 정보 제공

미국 군인전문보험회사 USAA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군대전역 이후 사회 적응 관련 전문상담서비스

의료업계의 Big data + 지능정보기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IBM-Watson과 협력,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Watson을 활용한 암진단 정확도가 대장암 98% 방광암 91% 위장암 94% 자궁경부암 100%으로 전문의 초기 오진비율 (20%)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미국 종양학회)



IBM Watson Health

<주요 경제권 동향 요약>

- 미국
 - 2008 금융위기 이후 회복력을 보이는 유일한 나라
 - 실업률(5%대), 물가, 성장 등 주요지표 안정
 - Fed의 금리인상 예상(12월)
- EU
 - 2012 재정위기 미회복 지속
 - Brexit, EU, Euro Zone의 와해위험등 잠재
- 중국
 - 감속성장(6%대)에 따른 문제야기
 - 고속성장 후유증 잠재 (부동산, 자산가격 거품, 과다부채, Shadow Banking등)
- 일본
 - Abenomix성과의 한계, 환율(엔화)의 절상 등
- 신흥국
 -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지속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Global 경기침체(불황)의 지속 Global Demand의 감소-수출입 수요 감소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한계 봉착

<US의 트럼프의 등장>

- 자국우선주의에 바탕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교역량 감소로 수출애로
 - TPP, FTA 재검토
 - 환율논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예상
 - 방위비 부담증액 등 불확실성 증대
- 경기부양책
 - 감세 (법인세, 소득세), 규제완화
 - Infra투자 (5년간 \$1조)
- 한국에 주는 영향 (위기와 기회의 공존 ??)
 - 외교, 안보(북핵)
 - 경제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오토 노이라트의 배(Otto Neurath's Boat)?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뜯어고쳐야 하는 뱃사람 같은 신세”

("We are like sailors who on the open sea must reconstruct their ship but are never able to start afresh from the bottom. Any part can be replaced, provided there is enough of the rest on which to stand.")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 성장은 일자리 창출, 복지자원 마련, 삶의 수준 향상의 근원

- '15 : 2.6% 성장 ('16 ??)

■ 성장의 3기준 : 세계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2)

■ 성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

-성장의 양보다 내용(질)에 주목 : 제조업 vs. 서비스업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청년실업률 (12.5% - 22%체감)-'Hell조선'

■ 노동개혁 vs 교육개혁의 동행 필요

-청년일자리 문제, 고학력자 과잉공급

-파견근로자법 : 뿌리산업(원천기술)-주조, 금형, 용접 등 활용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애로

-산 학 미스매치 및 기술 고졸 인력 부족 (해외연수생)

※전미경제학회 : Thomas Piketty vs Gregory Mankiw – 차별화논쟁 Angus Deaton('15노벨상 수상)-The Great Escape (가난, 질병, 빈부격차)

3.한국의 딜레마와 주요과제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 성장은 일자리 창출, 복지자원 마련, 삶의 수준 향상의 근원
 - '2015 : 2.6% 성장 ('2016 ??)
- 성장의 3기준 : 세계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2)
- 성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
 - 성장의 양보다 내용(質)에 주목 : 제조업 vs 서비스업
 -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 청년실업률 (12.5% - 22%체감) - 'Hell조선'
- 노동개혁 vs 교육개혁의 동행 필요
 - 청년일자리 문제, 고학력자 과잉공급
 - 파견근로자법 : 뿌리산업(원천기술)-주조, 금형, 용접 등 활용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애로
 - 산·학 미스매치 및 기술 고졸 인력 부족 (해외연수생)

※全美경제학회 : Thomas Piketty vs Gregory Mankiw-차별화논쟁
Angus Deaton('15노벨상 수상) - The Great Escape (가난, 질병, 빈부격차)

청년 고용률 국제 비교('1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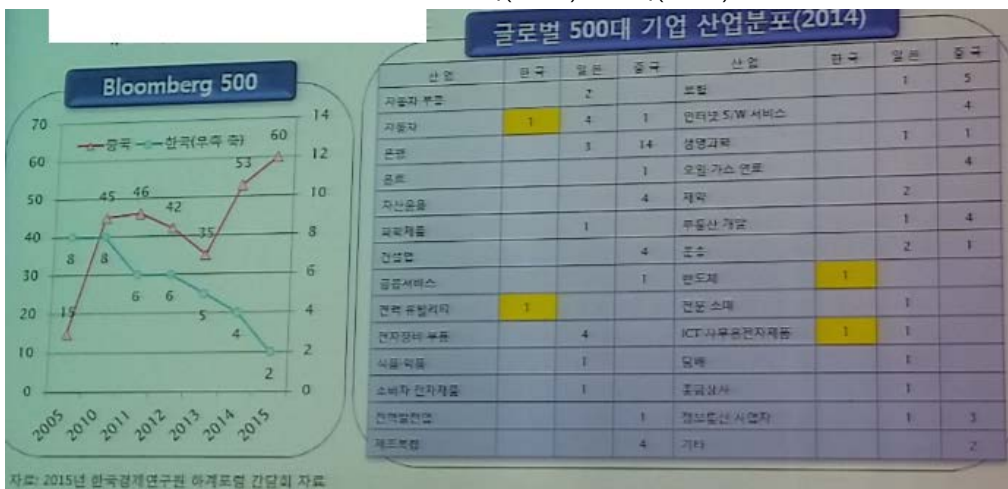
국가	청년 고용률 (%)
한국 ('15)	41.5
OECD	50.4
일본	55.2
미국	57.2
독일	57.8

산업구조의 개편

- 수출 vs 내수, 제조업 vs 서비스업
- 고용(취업)유발계수 : 내수와 서비스업이 압도
 - 기술, 자본 집약 상품의 기계화, 자동화
 - 내수,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친화적
- 의료 : 우수인력 집중 분야를 산업화해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
 - 고급해외의료 관광객 유치 (태국 180만, 한국 30만)
 - 의료의 산업화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의 발달 등 부수효과
 - 우수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도 가능
- 교육 :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 - 산업화 필요 (개방, 경쟁)
 - 세계 유수의 보딩스쿨 유치, 기러기 가족 문제 해결
- 관광 : 3대 요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 산악지대 활용 (강원도 산악 면적 vs 스위스 산악 면적)
 - 최대의 고부가산업(환경친화적 개발 가능)
- 한반도 전체를 경제특구화(개방과 경쟁) →구조조정, 규제혁파 필요

구조적 문제: 산업절벽 위기까지...

- 결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글로벌 대표기업 축소, 산업절벽 도래
 - 글로벌 대표기업 축소
 - *Bloomberg 500: 8개(2005) →2개(2015)
 - *Financial Times Global 500: 9개(2009) →4개(2015)



저출산 고령화 문제

- Aging(7%) : 한국 2000년, 일본 1970년
- Aged(14%) : 한국 2018년
- Ultra Aged (20%) : 한국 2026년, 일본 2006-한국이 10년 고속
- 생애 주기별 지원 등 10년 이상 지원 성과 별무
 - 합계출산율(1.2) : OECD최저-'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인빈곤율 : OECD최고
- Global유형 : 미, EU(프랑스), 일본, 중국---한국의 모델은?
- 다문화가정을 넘어 다민족(복수) 문화 수용 각오
 - 조직적, 체계적 이민정책 접근 필요

※Epis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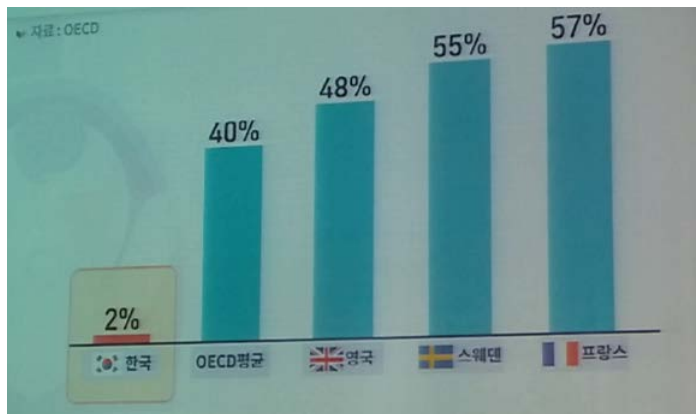
-Robert McNamara(미국), 둔충둥, 가족계획(?)

구조적 문제: 저출산 고령화

-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혼외 출산 비율



노동시장의 개혁

- 지향 : 시장의 유연성 제고 vs 고용의 안정확보
-일자리 유지, 창출, 성과급제도로의 임금체계 개편 중요
- 한국 노조의 특징
-민노총, 한노총 : 가입자 10% 미만 (귀족노조, 정치, 전교조)
-불법, 폭력의 난무, 광화문과 시청앞의 해방구화
-민주화 이후(1987)30여년의 세월 경과-노조행태 불변
- 노동개혁에 임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 부족
-노 사 정 합의에 의한 개혁안 도출은 비현실적, 비합리적
-사용자측 전략 혼선 (실업급여 인상, 청년연장의 선행)
-정리해고 기준 개악 (5년 소요), 취업규칙 개정
- 외국인 투자의 감소와 해외 투자의 확대
-일자리 불창출, 일자리 해외유출(자동차, 반도체, S-Phone)
- 외국의 사례
-독일의 하르츠개혁(the Hartz Reforms),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Reagan(미국), M Thatcher(영)의 대응

스페인르노와 이탈리아 피아트의 노사 관계 비교

스페인 르노와 이탈리아 피아트의 노사관계 비교			
	스페인 르노 RENAULT	이탈리아 피아트 FIAT	한국 (5개 완성차업체 공동 연봉은 평균)
단체교섭 주기	3년(2014~2016년)	4년(2015~2018년)	1년
인건비 추이	2013년 시간당 36.7달러 →2014년 31.6달러 (13.9% 감소)	2013년 40.9달러 →2014년 37.8달러 (7.6% 감소)	2013년 8900만 원(연봉) →2014년 9200만 원 (3.4% 증가)
고용 유연성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임금, 근로시간 변경 가능	정규직보다 임금은 낮지만 비정규직보다 안정성 높은 '준정규직' 도입	없음

교육개혁

- 교육의 이념(철학) : 능력과 품성 이상 - 모든 사회현상의 근저에 교육이 자리
- 교육의 양과 질에서의 모두 실패
 - 공급자 위주의 교육, 고학력자 (63:37), mismatch
- 3불 중심의 평준화 정책이 문제의 핵-공교육의 붕괴
 -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
- 사교육비 부담 과중으로 중산층의 붕괴 위험
 - 희망의 사다리, 신분상승 기회 소멸
-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특모고의 존치 사유인가?
 -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 : 창의, 수월성 인재
- 변별력 부족한 수능시험의 폐지와 대학입시의 자율화
 - 사립대학의 입시포함 운영의 전면 자율화
- 고교입시의 부활 : 경쟁의 적응할 수 있는 연령대
- 교육행정 체계의 개편 : 교육부(11/41)와 교육청, 교육감 직선제 문제
- 외국의 교육이념 (철학)
 - 일(迷惑), 미국(준법, 정직), 영국 (영재)

성장과 복지

-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 : 삶의 질1 - 복지의 확충은 불가피
 - 재원조달의 문제 봉착 (조세, 기타)
 - 한국의 조세부담률 : 18 ~ 19%(OECD 평균 24.5%)
 - 한국의 국민부담률 : 25% (OECD평균 40% 이상)
- 복지의 3원칙 : 자활 의지 ↑, 맞춤형, 지속가능성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자원의 유한성 : 언제, 어느 국가 - 선별적 복지 불가피
 - 투자 우선 순위 결정에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
 - 한국의 특수성 : 남북 대치에 따른 국방비 부담 가증
- 최근의 우려 상황
 -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취업수당 현금 지급
 - 누리예상편성 관련 중앙정부와 교육청과의 대립
 - 선거 앞둔 선심성 공약 난무 우려(무상 시리즈)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1	18.8	17.0	20.7	30.0	28.1	29.8	21.9	35.3	25.7
2002	18.8	15.9	18.5	28.9	27.4	29.0	21.3	33.7	25.4
2003	19.3	15.5	18.0	28.1	27.0	29.3	21.3	34.4	25.3
2004	18.4	16.2	18.3	28.3	27.4	28.5	20.8	34.9	25.4
2005	17.8	17.2	19.7	28.8	27.8	28.1	21.0	35.8	26.0
2006	18.6	17.8	20.5	29.6	28.0	29.7	22.0	36.0	26.2
2007	19.6	18.1	20.6	29.1	27.5	30.3	22.9	35.0	26.3
2008	19.3	17.4	19.1	29.0	27.3	29.6	23.1	34.9	25.6
2009	18.2	15.9	17.0	27.4	25.8	29.7	22.9	35.2	24.5
2010	17.9	16.3	17.6	28.2	26.3	29.5	22.0	34.1	24.6
2011	18.4	16.8	18.5	29.1	27.4	29.6	22.7	34.1	25.0
2012	18.7	17.2	18.9	26.7	27.5	-	22.5	-	24.7
2013	17.9	-	19.3	26.7	28.3	-	22.7	-	25.8
2014	18.0	-	19.8	26.5	28.2	30.5	22.1	32.8	26.1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2014년은 잠정치)
 * '04년까지는 '93 SNA, '05년부터는 '08 SNA를 기준으로 함.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1	23.0	26.8	27.4	36.2	44.1	41.7	36.3	49.4	34.7
2002	23.2	25.8	25.1	34.8	43.5	41.1	35.6	47.5	34.4
2003	24.0	25.3	24.5	34.4	43.3	41.5	35.8	47.8	34.3
2004	23.3	26.1	24.7	34.9	43.6	40.8	35.0	48.1	34.3
2005	22.5	27.3	26.0	35.4	44.1	40.6	35.0	48.9	34.8
2006	23.6	28.1	26.8	36.3	44.4	42.1	35.7	48.3	35.0
2007	23.6	28.1	26.8	36.3	44.4	42.1	35.7	48.3	35.0
2008	23.6	28.5	26.9	35.7	43.7	43.2	36.1	47.4	35.0
2009	24.8	28.5	26.9	35.7	43.7	43.2	36.1	47.4	35.0
2010	24.8	28.5	25.4	35.8	43.5	43.0	36.5	46.4	34.5
2011	24.6	28.5	25.4	35.8	43.5	43.0	36.5	46.4	34.5
2012	24.6	28.5	25.4	35.8	43.5	43.0	36.5	46.4	34.5
2013	24.3	-	25.4	32.9	45.0	-	36.7	-	34.5
2014	24.6	-	26.0	32.6	45.2	43.6	36.1	42.7	34.4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2014년은 잠정치)
 ** '04년까지는 '93 SNA, '05년부터는 '08 SNA를 기준으로 함.

Governance 개편과 시대정신의 정립

- 대한민국은 가치중립국인가? -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진영논리, 좌우, 보수진보의 갈등, 분열 심화
- 선진국 진입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중요
-헌법개정 (대통령제, 내각제, 분권제)
-3권분립의 기능과 역할 재점검 필요 (입법권련의 과잉화 경계, 행정부의 재량 범위 확대 필요)
- 사회흐름(시대정신 Zeitgeist)의 황폐화
-Freedom is not free(자기책임 실현의식의 부족)
-공동체 의식의 소멸, 법치의 실종

※Marx Webber(독일)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기독교 정신 : 정직, 성실, 근면, 금욕

M.Gandhi의 교훈

- 나라가 망할때의 징조

- 원칙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al)
- 노동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 도덕없는 경제 (Economy without Morality)
- 희생없는 종교 (Religion without Sacrifice)

※마키아벨리, 한비자

-성선설 <성악설, 법치의 실종(채찍-규범화)>

-군주의 덕목 : 사람보는 안목

-결국은 많은 부분이 사람의 문제로 귀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중용성과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 이상 수출주도형 제조업으로는 저성장 지속, 일자리 감소, 소득격차 확대 등의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유발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특히 대표적인 구조 개편 방향으로 의료, 교육, 관광 등 3가지 핵심 산업의 육성을 꼽았다.

그는 "현재 60, 70대가 젊었을 때는 화학, 기계, 조선, 원자력 등 공과대에 인재들이 몰렸고, 이들이 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했다"며 "최근 20년 동안은 우수인력이 의대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수인력이 집중된 의료 분야를 산업화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윤 전장관은 특히 고급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30만명에 불과해 태국의 180만명보다 6분의 1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중국이나 동에서 한국 의료진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며 "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될 분야가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인데 우리는 성장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산업 육성에 대해서 윤 전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인 만큼 교육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 없고 그만큼 교육열이 높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명문 보딩스쿨(기숙사 학교)을 유치하면 기러기 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우리 교육이 양과 질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수준이 첫째로 28000달러가 넘으면서 예전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창출과 자립능력이 생겨난 여성들에게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인식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벅찬 현실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거기다가 우리 사회시스템이 뒷받침을 못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직 남녀간의 문제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잖아요. 소위 모혼모를 보는 시선이 차갑지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약 45만명인데 맞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명도 그 정도입니다. 그들을 돌볼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때, 여성법무장관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상태로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르몽드가 '저 법무부 장관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하고 사진을 찍어 실었어요. 당시 장관은 독신이었죠. 프랑스 문명은 전혀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아닙니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 구조 바뀌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대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실업 문제입니다. 졸업한 뒤 일할 데가 없어 소수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려고 매달립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노동 시장의 뿌리

에 잘못된 교육 구조 즉 역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서 개혁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1년에 고졸 출신 15만명이 노동 시장에 공급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구조가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사원인 행원 1명에 대리가 2명, 3명이 있습니다. 고졸이 15만명인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50만명이 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OECD에서 조사를 하다가 우리에게 문의를 했어요. 자료를 거꾸로 낸게 아닌지. 우리가 제출한 OECD 자료에서 대졸 대 고졸이하의 비율이 63대 37로 나왔습니다. 내 기술 가지고 사회 생활 뚝뚝이 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대학이 400개가 넘습니다. 이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숫자와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부도 분별력도 없는 수능시험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학의 입학 자율에 맡겨야 하며,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더 올리고 국립대학의 입학금은 낮춰서 재능있는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